

노병천의 손자병법 인문학

글. 노병천 미국미드웨스트대학교 리더십박사
전 육군대학 전략학처장
전 미국지휘/참모대학 교환교수
전 나사렛대학교 교수. 부총장
현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개 전역만이 직접접근을 통해 승리했고 나머지 274개 전역은 모두 간접접근에 의해 승리를 달성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리델 하트는 손자병법에 흠뻑 빠진 마니아였다. 그리피스 장군의 박사학위 논문 ‘손자병법’을 애독했으며 그의 책에 손자병



Basil Liddell Hart, 1895~1970

법의 명구를 대거 인용했다. 그가 주창한 간접접근 전략은 바로 손자병법 군쟁(軍爭) 제7편에 나오는 ‘돌아감으로써 직행으로 삼는 계략’인 우직지계(迂直之計)에서 나왔다. 간접접근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다. 직접적으로 힘을 적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예기치 않은 불의의 방향으로 접근해 적을 동요시켜 균형을 잃게 한 후에 최소의 저항, 최소의 피해로 승리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19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낫다 간접접근의 승리, 인천상륙작전

우직지계(迂直之計)
— 『손자(孫子) 군쟁 제7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앞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디 입니까?” “네, 한반도입니다.” 1946년 영국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에 주저 없이 답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예견한 대로 정확히 4년 후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졌다. 그는 리델 하트였다. 리델 하트는 누구인가?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보였던 기계화 전투 방식을 주창해 유명해진 영국의 군사전략가다. 그의 이론은 독일군이 대륙을 휩쓸게 된 전격전(電擊戰)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 승리의 비결로 간접접근 전략(Indirect Approach Strategy)을 주창했다. 그 이론을 담은 책이 『전략론』인데 고대 페르시아 전쟁에서 제1차 중동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는 30개 전쟁, 280개 전역을 분석해 280개 전역 중 6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은 간접접근 전략의 교과서 같은 작전이다. 인천상륙 계획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된 북한군 제1, 2군단의 주력이다. 만약에 이들이 김해를 알아채고 인천 방면으로 부대를 돌린다면 작전은 허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들을 낙동강변에 묶어두기 위해 국군과 미군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솟으며 결전했다. 간접접근 전략에 사용되는 용어로 표현하면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견제를 한 것이다. 견제라는 말은 경쟁 대상이 지나치게 세력을 가지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륙군 주력은 북한군의 배치가 가장 미약하고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해안의 해상 기동로를 따라 인천으로 접근했다. 최소저항선과 최소예상선을 택해 적의 배후를 지향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손자병법 시계(始計) 제1편에 나오는 ‘적이 준비되지 않은 곳을 치고,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攻其無備 出其不意)이다. 인천상륙 뒤엔 서울을 목표로 군대를 기동함으로써 적의 퇴로와 병참선을 차단해 적을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적에 의한 저항을 최소화시켜 가장 적은 전투와 최소의 희생으로 서울을 탈환했다. 간접접근 전략이 완벽하게 적용된 것이다. 통상적인 정면 공격 위주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 간접접근으로 승리를 쟁취한 맥아더 장군의 탁월한 전략적 안목이 돋보인다. 만약에

인천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모하게 낙동강에서 정면 공격만을 고집했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는 물론 어쩌면 부산까지 모조리 점령당해 지금쯤 우리는 북한 인공기를 보고 살지도 모른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과 중공군은 전체 18개 군단급 부대에서 무려 9개 군단을 동해안과 서해안에 배치해야 했다. 왜냐하면 유엔군의 또 다른 상륙작전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산군 측은 전력의 50%를 후방에 배치해야 하는 뼈아픈 처지에 빠졌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단 한 번의 작전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작전이었다.

이제 손자가 말하는 우직지계를 보다 쪼개어 알아보자. 손자는 우직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돌아감으로써 직행으로 삼는 이우위직(以迂爲直)과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환위리(以患爲利)다. 돌아감으로써 직행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거리와 시간과 처세(處世)에 있어서의 적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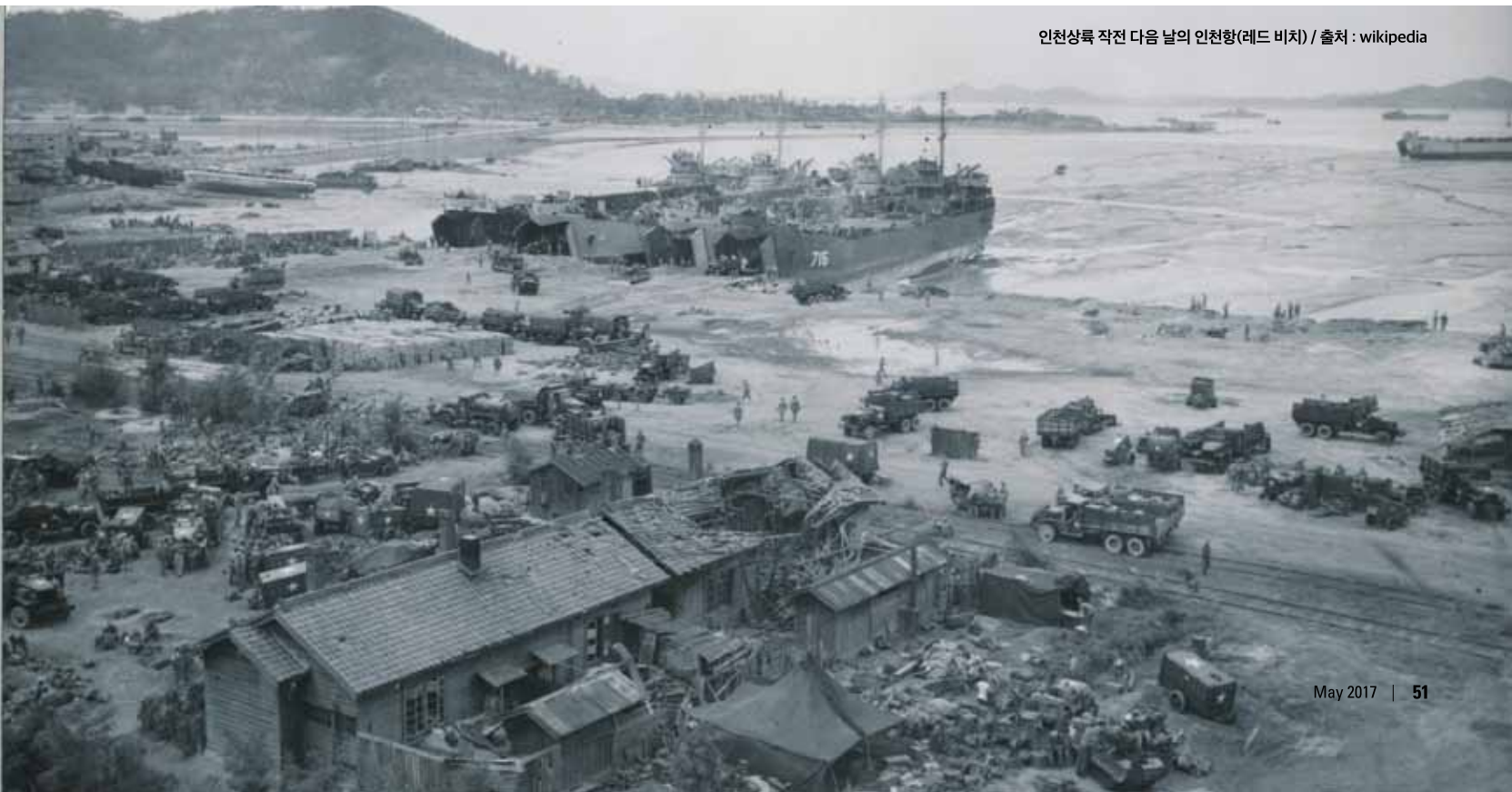
먼저 거리의 개념이다. 돌아가는 게 실제로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격 목표가 저 멀리 있는 백두산 고지라 하자. 그곳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런데 접근이 쉬운 가까운 길에는 이미 적들이 온갖 방어조치를 다해뒀다. 지뢰도 심어두고 철조망도 쳐놓고 적절히 병력도 배치해뒀다. 이렇게

되면 비록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이용하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록 멀리 돌아가지만 적의 장애물이 없는 길을 택하는 게 피해를 줄이고 실제로 빨리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빠르고 쉬운 길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둘째는 시간의 개념이다. 촉박하게 서둘러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느림의 미학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피해 의주로 임금 행차를 모시고 피란을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으려고 앞을 다투어 뛰어가는데 앞을 보고 한음 이덕형은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뛰어가면 앞에 가는 비까지 맞을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혼자서 여유롭게 팔자걸음을 했다고 한다. ‘빨리빨리’ 문화에 젖은 우리에게 ‘이우위직’이 가르쳐주는 느림의 미학은 분초를 다투는 각박한 세상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는 좋은 처방전이 될 수 있다. 느리게 가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소홀히 했던 사람들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는 처세의 개념이다. 돌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삶의 방식은 당장에는 손해 보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 선(善)의 부메랑이다.

인천상륙 작전 다음 날의 인천항(레드 비치) / 출처 : wikipedia





출처 : wikipedia

迂 멀 우
直 곧을 직
之 갈 지
計 꾀 계

迂 直 之 計

우 직 지 계

돌아가는 것으로 직행을 삼는다

우직지계의 두 번째 큰 의미는 이환위리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

첫째 의미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다. 전국시대 합종책(合從策)으로 6국의 재상을 겸임했던 소진은 이런 말을 했다. “옛날에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은 ‘화를 바꾸어 복을 만들었고(轉禍爲福)’ ‘실패한 것을 바꾸어 성공으로 만들었다(因敗爲功)’” 아무리 어렵고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강인한 의지로 헤쳐 나가면 근심거리를 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가 걸림돌이지만 현자에게는 근심거리가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둘째 의미는 근심과 위험과 도전을 오히려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화위복과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토인비는 불멸의 저작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했다. 파르테는 신전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메타포(metaphor)를 얻었던 그는 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이나 문명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토인비는 저술이나 외부 강연을 할 때면 청어 이야기를 즐겨 인용한다. 청어는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서 거의 매끼 식사마다 식탁에 오르는 생선이다. 그런데 싱싱한 상태로 청어를 복해나 베링해협에서 런던으로 옮기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 몇 마리를 수조에 함께 넣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청어들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물메기에게 뜯기지 않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도망 다닌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산시장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걸림돌도 디딤돌도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나면 가능한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생각하지 마라.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라. 세상의 이치란 묘해서 빨리 간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돌아가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곡즉승(曲卽勝)’의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인생은 긴 마라톤이다.
천천히 간다고 결코
늦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너무 막다른 길로 몰지 마라

케네디의 쿠바미사일 위기사태

궁구물박(窮寇勿迫)

—『손자(孫子) 군쟁 제7편』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196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옛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해 위기를 일으킨 것과 같다.” 2007년 10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까지 미사일방어(MD)체제에 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위기를 기억하는가? 쿠바 미사일위기(1962. 10. 16~28)는 전 세계를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다. 위기를 맞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케네디와 그의 각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넘겼는지 살펴보자.



쿠바미사일 위기의 케네디와 흐루쇼프를 풍자한 그림

1959년 새해,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한 반란이 성공해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곳에 공산정권의 교두보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흐루쇼프는 62년 9월 ‘소련·쿠바 무기원조협정’을 체결한 뒤 극비리에 6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42기의 중거리 미사일과 42대의 장거리 폭격기, 162기의 핵탄두, 5,000여 명의 군인·기술자들을 쿠바 인근으로 이동시켰다. 10월 14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서부지역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촬영했다. 이들이 지난 10월 16일 국가

안전보장회의 비상대책위원회(ExComm 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논의된 방안은 세 가지였다. 공중폭격, 육상침공, 그리고 해상봉쇄였다. 직접적인 무력수단으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매파와 해상봉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비둘기파가 팽팽히 대립했다. 10월 22일 월요일 저녁 7시, 케네디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차분한 어조로 대국민 연설을 했다. “지난주, 쿠바에서 핵공격 미사일 기지가 건설 중에 있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서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서반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소련이 미국에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은 소련에 대해 전면전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러고선 쿠바에 무기를 운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봉쇄를 단행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케네디의 표현은 ‘봉쇄’를 의미하는 blockade 대신 ‘격리’라는 뜻의 quarantine이었다) 그러고선 쿠바에 무기를 운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봉쇄를 단행한다고 선언했다. 또 한 14일 이내에 쿠바에 설치된 미사일을 철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소련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왔다. 흐루쇼프는 소련의 핵미사일 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렸고, 쿠바로 향하고 있던 선박들에 멈추지 말고 계속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크렘린 최고간부회의를 소집해선 “이것은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실제적인 해상봉쇄는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때 20척의 소련 선박이 정선명령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곧 미 해군은 봉쇄선을 지나려는 소련 선박에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통보할 참이었다. 케네디와 그의 각료들이 백악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며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 절박한 순간에 해군 정보국에서 메시지가 날아왔다. “쿠바로 향하던 20척의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멈추거나



R-14 미사일, 기존의 R-12 미사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타격이 가능했으며, R-14 미사일은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일부를 제외한 미국 본토 전 지역을 사정권에 포함한다. / 출처 : wikipedia

회항했다”는 내용이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올 때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는 “잠깐이나마 세상은 멈춰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가 그대로 있었다. 해상봉쇄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백악관에서는 다시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무력으로 쿠바를 공격하자는 주장이 거세졌다.

10월 26일 케네디는 흐루쇼프로부터 한 통의 서신을 받았다.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두 번째 서신이 도착했다. “우리는 터키의 미국 미사일 기지도 철수할 것을 원한다.” 이때 쿠바를 정찰하던 미국의 U-2기가 격추돼 조종사 루돌프 앤더슨 소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비행기를 격추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크렘린의 지시가 무시된 것이다. 소련에서도 군 통수권이 흔들리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강경파에 의해 쿠바에 대한 공중폭격이나 상륙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후인 월요일을 D-day로 정해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는 상태였다. 보복하고 확전할 것인가? 하지만 케네디는 냉정하고 신중했다. 그리고 소련의 타협안 중 첫 번째 안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전달했

다. 곧 소련의 대답이 날아왔다. “우리는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1962년 10월 28일이었다, 전 세계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이었다. 흐루쇼프의 답신을 받은 케네디는 방송에서 위기의 종식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만약 당시 핵전쟁이 벌어졌다면 6분 내에 2,500km 반경의 미국 본토가 초토화되었으며, 미·소 양국에서 1억 명, 유럽에서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쿠바미사일 위기를 다룬 영화인 로저 도널드슨 감독의 <D-13> (2001년작)

窮 다할 궁
寇 도둑 구
勿 말 물
迫 닥칠 박

10월 25일 UN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 대사 애들레이 스티븐슨은 쿠바에 배치된 소련 탄도미사일의 정찰 사진을 공개했다. / 출처 : wikipedia



窮寇勿迫

궁 구 물 박

궁지에 몰린 도둑은 너무 몰지 말라

손자병법 군쟁(軍爭) 제7편에 보면 쿠바 미사일위기와 직접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어귀가 나온다. 적을 포위했을 때는 한쪽 구멍을 터주어야 한다(圍師遺闕). 적이 궁지에 몰려 있으면 너무 모질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窮寇勿迫). 한 마디로 쫓기는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몰아넣지 말라는 말이다. 쥐도 물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다.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면 어떤 돌출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케네디는 마지막까지 흐루쇼프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한 후에 미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흐루쇼프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굴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흐루쇼프가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양보를 쟁취했다고 자만하고 싶어 하거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둥시다. 그것은 패자의 특권입니다.” 결국 케네디는 흐루쇼프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상생(相生)의 길을 돌파구로 찾았던 것이다.

토머스 홉스는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만인에 대한 무차별의 공격성으로 표출된다.”고 말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할 길이 없을 때 사람은 막다른 길에서 이성을 잃고 무차별 공격과 돌출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들어 부쩍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총기난사사건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케네디는 아주 지혜롭게 흐루쇼프를 다룬 것이다. 로맹 롤랑은 이런 말을 했다. “남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추어주거나 금지나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 쉽게 속아 넘어간다.” 참 재미있고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서로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훗날 재클린 케네디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케네디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침실에서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카스트로 역시 흐루쇼프를 ‘겁쟁이’라고 몰아붙였다. 결국 겁쟁이가 조금 덜한 겁쟁이에게 진 셈이다. 겁 없이 덤빈다고 해서 용기가 아니다. 오히려 겁은 나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궁지에 처한 사람을 모질게



대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일에 부딪히게 된다. 명심하자. 어떤 경우든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지 말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몰 경우에는 반드시 피할 길, 숨통을 열어두라. 사람이 한 맺힌 일을 당하게 되면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앙갚음으로 되돌려 받을 때가 있다. 회사 내에서 우리는 수시로 부딪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꼭 기억하자. 절대로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말자. 특히 인격과 관련된 자존심은 더욱 조심하자. ‘폭발!’한다. 💣

사람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만큼 격한 감정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